

北韓地域 傳統住居에 관한 調查研究(1)¹⁾

- 북한출신주민들의 지식체계분석을 통하여 -

姜榮煥

(울산대학교 교수)

제1장. 서론

전통 주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일찍부터 건축학, 지리학, 민속학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어 왔다. 건축학 분야에서는 주거 공간 및 형태에 초점을 두어 주거 문화의 특질과 그 변화를 파악하려 하였고, 지리학에서는 주거 유형의 지리적 분포로서 문화권을 설정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왔다. 또한 민속학에서는 주거의 건설 과정이나 건축의례 등을 대상으로 전통 문화를 복원하고자 했다. 비록 각 학문의 관심 영역과 관점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해도 연구의 대상은 전통 주거의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성, 계층성, 시대성을 해석하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과제였다.

해방 이후 국내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전통주거의 실증적 자료들이 폭넓게 수집되고 해석되는 가운데 연구지역내에서 또는 지역간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 주거의 시대성이나 지역성, 계층성 등이 규명되어 왔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주거사 또는 한국 주거문화의 지역적 특성, 한민족 주거문화의 정체성 등 한반도와 한민족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해방이후 남한학자들은 북한으로의 현장조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북한지역에 관한 새로운 자료의 제공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북한지역에 대한 자료는 전적으로 일제시기

일본인 학자들¹⁾이나, 북한학자들²⁾이 그들의 관점에서 섭렵한 극히 소수의 자료에 의존해 왔다.³⁾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주거연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지역적 특성마저도 파악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어떤 가설도 뒷받침될 수 없는 극소수의 자료만이 제공되어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는 한반도와 한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전통주거문화의 본질과 성격을 파악하려는 시도에 장벽이 되고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현지조사가 가능하게 되어 북한지역 주거에 대한 실증적 조사와 자료의 확충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에서 현지조사의 가능성은 쉽게 보이지 않으며, 현지조사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그 지역의 전통주거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남한의 근대화 과정에서 보여지듯이 해방이후 북한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심각한 변형이나 파괴, 소멸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통주거에 관한 연구는 현장실측 조사에 의한 자료수집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 1) 북한주거를 연구한 일본인 학자들은 小田内通敏, 今和次郎, 岩規善之, 野村孝文 등이 있다
- 2) 대표적인 북한연구자로는 리종목과 황철산을 들 수 있다
- 3) 기존연구에서 제공된 북한지역 전통주거의 도면자료는 통틀어 40여개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모두 1960년대 이전에 조사 작성된 것이다. 결국 이 자료만이 현재까지 인용, 재인용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장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때, 북한지역의 전통주거에 대해서는 2차적인 자료발굴이라도 시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차적인 자료란 그 주택에서 거주했거나 그러한 주택을 건설했던 사람들의 간접적인 경험을 의미한다. 현재 남한에는 북한출신의 월남자들이 다수 생존해 있고, 이들을 통하여 자료를 구할 수 있다면 최소한 그들이 경험한 해방이전의 간접자료는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북한지역 전통주거에 대한 자료발굴방법의 가능성을 찾고, 새로운 자료를 발굴 제공함으로써 담보 상태에 있는 이 분야 연구에 활성화를 기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또한 이 자료를 통하여 기존의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북한지역 주거문화의 지역적, 시대적, 계층적 특성 등을 규명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북한출신 월남자들이 경험한 북한지역의 전통주거이며, 그것에 대한 그들의 기억과 재생을 통하여 건축적 자료를 발굴, 수집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물론 전통주거의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자료는 주택이라는 물리적 환경이며 이는 현장에서 실측을 통한 도면작성에 의해 얻어져 왔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적인 여건에서 실체에 대한 현장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2차적인 자료로서 그곳에 거주하거나 건설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주택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를 분석하는 일도 유의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북한출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면담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주거형태를 색출하고자 한다. 월남이전 그들의 인지적 성숙도를 감안한다면 월남 당시 15세 이상, 즉 현재 60세 이상의 주민이 유효할 것으로 추측된다. Piaget의 인지발달론에 의하면 11세에서 15세 까지의 사춘기를 환경적 인지가 완전히 성숙하는 단계⁴⁾로 보기 때문

이다. 이 조사는 이북 5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그들이 경험한 주택의 건축적 특징 뿐만이 아니라, 주거의 입지, 건축연대 및 당시 거주인의 사회경제적 성격 등을 기술하게 함으로써 그 주택의 시대성이나 지역성, 계층성이 분석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조사를 통하여 북한지역 전통주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적 지식을 갖는 중요 자료제공자(key informants)를 색출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만일 그 지역에서 전통주거의 건설경험이 있는 풍수사나 대목, 소목, 와공, 토역 등이 색출된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심층조사에는 용어체계를 분석하는 민족지적 면담방법(ethnographic interview)을 사용하여 주거유형 및 건축계획적 방법, 건설과정, 건축의례 등이 분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⁵⁾

본 연구는 일종의 선행적 연구로서 연구비의 한계상 우선 부산·경남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출신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에서 조사방법과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조사대상을 남한의 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확장할 계획이며, 통계학적 분석이 가능할때까지 자료수집이 계속될 것이다. 물론 이번 연구에서도 얻어진 자료를 통하여 기존이론을 수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것이며, 이는 향후 통계학적 검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제2장. 설문조사의 과정과 수신자료의 성격

2-1. 설문조사의 과정과 방법

Environment,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80, p.67

- 5) 민족지적 면담방법을 주거문화의 분석과 기술에 적용시킨 예는 필자의 학위논문인 "삼척이남 동해안지역 전통민가에 관한 연구-지방목수들의 지식체계분석을 통하여-(서울대 박사논문, 1988)를 필두로 "민족과학적 방법을 원용한 전통주거문화의 연구"(한국문화인류학21집, 1989), "지방대목들의 지식체계분석을 통한 전통문화의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40호, 1992)등이 있다

4) I.Aitman & Chemers, Culture and

본 조사는 이주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북한 주거의 모습을 가능한 상세히 재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설문지라는 방법이 대상자의 기억을 정확히 재생하는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대상자의 윤곽을 파악하기 위한 초기적 조사라는 점과 제한된 시간안에 많은 대상자와 접촉할 수 있다는 점, 연구대상자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생각되었다. 설문지의 첫항목은 인적사항으로서 계속적인 접촉을 위해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였고, 현재의 나이와 월남 당시의 나이를 알아보기 위해 생년월일과 월남년도를 질문하였다. 두 번째 항목은 북한에서의 주소와 가족형태, 경제형태와 계층을 기재토록 하였다. 세 번째 항목은 건설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서 이는 향후 면담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었다.

주거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항목은 마을입지에 대한 항목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마을의 입지(도.농의 구분), 마을지형(산지와 평야의 구분), 마을규모는 호수로 기재토록 하였다. 주거내의 건물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물명과 규모, 형태, 평면(홀집과 겹집의 구분), 지붕형태, 지붕재료 등 배치평면도에 표현되지 않는 내용을 질문하였다. 대문과 담장의 형태 등 외곽시설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었다. 공간의 용도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도 삽입하였다.

본 조사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대상자들이 직접 그려준 북한거주 당시의 주거모습이었다. 설문대상자들이 도면작성의 경험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두 개의 배치평면도를 보기로 제시하고 도면기호 범례를 제공하였다. 입면까지 작도하는 것을 생각하였으나 비전문가에게 입면 작도는 어려운 작업이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설문지 자체가 회신되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본 조사에서는 배제 하였다. 대신 당시 주택의 사진이 있을 경우 보내줄 것을 정중히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진은 단 한 장도 입수되지 못하여 본 조사에서는 배치평면도와 설문항목의 범주내에서 자료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설문지 양식을 확정된 후 이북오도민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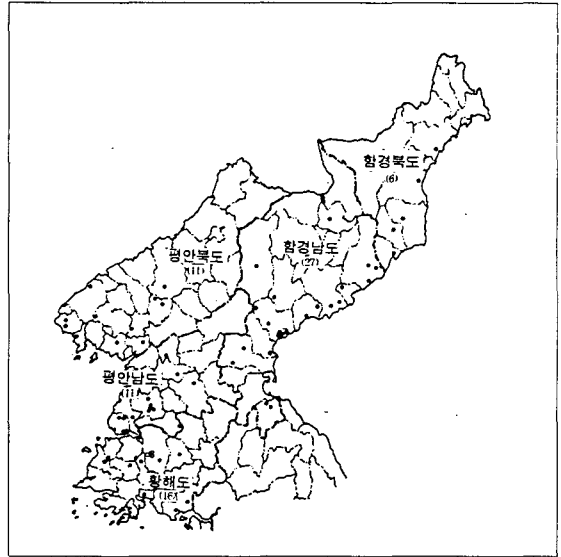


그림 1. 수신지역의 지역별 분포

경남사무소와 부산사무소를 통하여 설문지 배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본 조사의 대상자는 당시 주거의 모습을 가급적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월남당시 15세 이상(현재 나이 65세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현재의 주소가 명확하고 회신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각 도별 이사급을 우선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명단을 색출한 결과 부산.경남지역에서 총 436명을 확보하였고, 설문지를 발송한 결과 경남지역에서 46건, 부산지역에서 36건, 합계 80건이 회신 되어 18.3%의 회신율을 보였다.⁶⁾

그러나 회신된 설문지 중에는 도면을 작도하지 않은 경우(7건), 북한지역이외에 거주한 경우(1건), 일본인 건설한 연립주택(1건) 등 본 연구와 관련되지 않는 자료도 있어 이를 비유효자료로 분류배제하고 71건만을 유효자료로 확정하였다. 유효자료만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함북이 가장적어 6건이고, 함남이 가장 많아 27건, 평북 11건, 평남 16건 등으로서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물론 사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거유형의 분석에 있어서 통계학적 처리가 어려웠다.

6) 회신율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 주소변경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2-2. 수신자료의 성격

회신된 설문지에서 나타난 각 항목별 답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수신자료의 성격이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가구의 성격 살펴보면 4인 미만의 가족은 극히 적었고, 오히려 6인 이상의 가족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가 6.3인으로서 대가족이지만, 가족형태로 보면 확대가족이나 방계가족이 아닌 3대 직계 가족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개중에는 하인이거나 머슴 등 비가족구성원이 거주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제시기까지도 부농계층에서는 주종관계의 동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회신자의 경제형태는 농업이 월등히 많고 (47건), 그 다음이 상업(10건), 공업(7), 기타(7)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수신자료의 대부분이 농촌주거임을 의미한다. 회신자가 주관적으로 기록한 당시의 경제계층은 상(12), 중(40), 하(18)로서 거의 정규분포를 이루었다. 생업이 농업이었던 가구의 경우 경작규모를 살펴보면 상류계층, 즉 부농이라고 기술한 경우는 대부분 1만 5천평 이상의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계층이었고, 중류계층이라고 기술한 사람은 약 3천평에서 1만 5천평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다. 빈농으로 기록한 경우는 소작농으로서 3천평 이하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다.

주거입지는 농촌지역이 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농촌마을에 소재하였던 농촌주거였음을 알 수 있고, 소수(6건)이지만 도시에 소재했던 도시주거도 조사되었다. 마을의 지형적 조건은 산지(27건)와 평야(33건)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황해도 자료 모두가 평야라는 사실은 황해도가 평야지대라는 점에서 쉽게 수긍될 수 있지만, 산악지대인 함경북도에서도 모두 평야지대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함북지역의 회신자료를 지도로 표시한 결과 자료 모두가 내륙산악지대가 아닌 동해안에서 가까운 평야지대에 소재한 것이었다. 함남과 평안도에서는 산지와 평야가 비슷한 빈도로 조사되었다. 마을규모는 30호 미만이 10건, 30호에서 90호까지 21건, 90호 이상이 15건, 도시 및 읍소재지가 6건으로 나타났다.

30호 미만의 소규모 마을은 주로 산악지대에서 많이 나타나고, 중·대규모 마을은 주로 평야지대에 소재한 것이었다.

주거의 건립연대는 1700년대로부터 해방시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중에서 일제시기 이전, 즉 1910년 이전에 건립되었다고 기록한 응답자는 16명이며, 1910년 이후라고 기록한 응답자는 31명이었다. 그러나 건립연대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 중에 많은 경우는 응답자가 출생하기 이전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제시기 전후의 빈도가 비슷하리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건립연대는 일제시기에 주거형식의 변화양상을 추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주거의 건축적 성격을 묻는 항목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1차수신자료에는 건물의 형태와 배치, 공간구획정도를 스케치한 자료도 있었지만 개중에는 예상과 달리 놀랄만큼 명확하고도 상세하게 작도한 경우도 많았다. 이 경우 바닥재료나 창호의 위치, 심지어 척수까지 기입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척수가 기입되지 않은 평면들을 정리하는 기준이 되었다. 1차 수신도면을 보정하여 도면으로 재작도하고, 누락되었거나 모호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추가하여 재발송한 결과 2차 회신을 얻을 수 있었다. 2차 수신도면을 정리하여 2차 보정도면을 작성하였고, 이에대한 확인과 검증을 위해 3차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작성자가 도면의 적부를 확인할 때 까지 발송과 회신의 반복을 거친 후에 유효도면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유효도면들은 오로지 작성자의 기억에 근거한 것이며 그 표현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모습과는 어느정도의 오차가 있을 것이다. 특히 공간의 규모, 벽체재료, 기둥 위치, 창호의 종류 등은 해당지역의 일반적 경향에 의해 보정된 것이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이러한 오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건물의 종류와 배치, 평면형태와 공간의 배열, 바닥재료, 창호의 유무와 위치 등은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연구에서 제공된 건축요소들도 결국 이러한 범주에 머물기 때문에 본 연구의 자료와 비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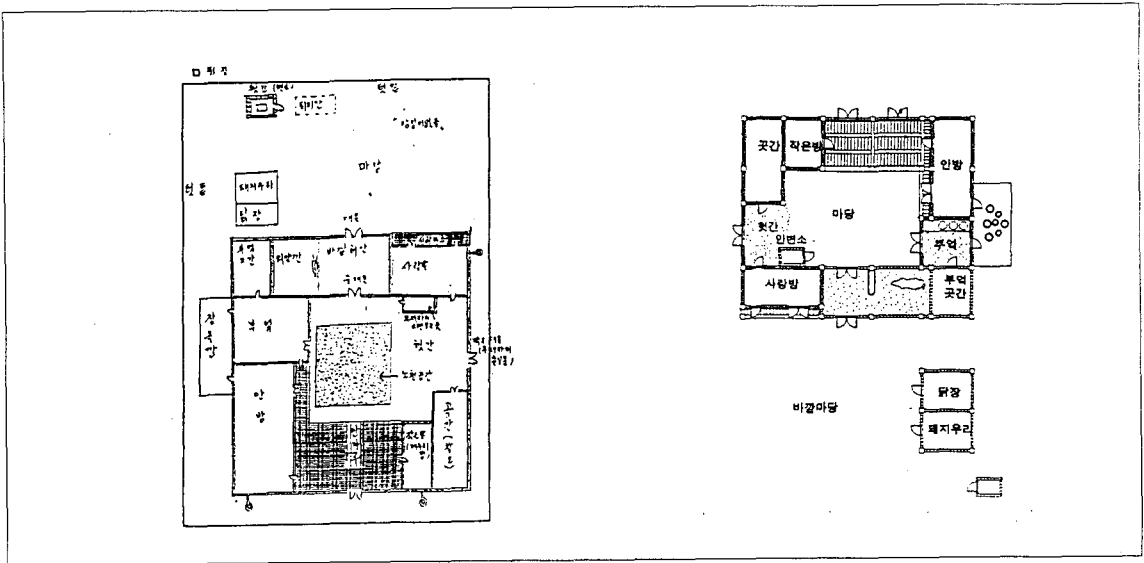


그림 2. 1차 수신도면과 보정도면의 예

토하기에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방법에서 얻어진 자료들은 현장답사에 의한 기존의 자료수준과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조사방법의 유효성이 입증되었다고 생각된다.

제3장. 수신자료에서 나타난 북한지역의 주거유형

3-1. 함경도 지방의 주거유형

기존의 주거유형분류법에 의하면 함경도지방의 보편적인 주거유형은 '양통집'으로 분류되어 왔다.⁷⁾ 양통과 외통의 분류법⁸⁾은 살림채의 평면형식을 기준으로 주거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양통집이란 살림채에 있어서 방의 배열이 두 줄이상 겹쳐져 있는 집을 말한다. 이때 내부에 간막이가 없이 2칸통의 방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네 기둥으로 이루어지는 간의 배열이 두줄이상 겹쳐져 구 성될 때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양통형의 평면형식은 강원도와 경 북일원에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내부공간의 구성

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함경도 지방의 보편 적인 주거유형은 '정주간이 있는 양통형'으로 구 분되어 왔다. 정주간이 있는 양통집은 부엌과 정 주간 사이에 간막이가 없고, 정주간이 통간의 거 실로 사용되며, 방의 배열이 겹쳐져 이루어진 집 을 말한다. 이러한 주거유형은 함경도형(또는 관 북지방형)으로 불리우리만큼 함경도지방의 대표 적인 주거유형으로 인정되어 왔고, 심지어 중국 의 길림성과 흑룡강성 일대에 이주한 함경도출신 의 조선족들도 아직까지 이러한 주거유형을 사용 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⁹⁾

이번 조사에서도 함경도 출신의 응답자들 은 대부분 '정주간이 있는 양통집'을 작도해 주었 다. 특히 함북지역 수신자료 모두(6건)가 이 유 형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 유형은 함경남도에도 이 르기 까지 폭넓게 나타난다. 수신자료는 기존연 구에서 보여진 평면형태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물론 담장의 경계와 부속채의 종 류와 배치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수신자료 중에는 부농계층으로서 거대한 부속채를 거느린 주거

8) 학자에 따라서는 겹집과 홑집, 또는 목렬형과 단렬형으로 부르기도 한다

9) 강영환, 中國 延邊地區 朝鮮族의 住居空間 및 生活方式 -龍井市 智新鄕 長財村을 대상으로-, 한국건축역사 연구 제 5권, 1994, 131쪽

7) 리종목, 우리나라 농촌주택에 관한 연구, 과학원출판사, 1961, 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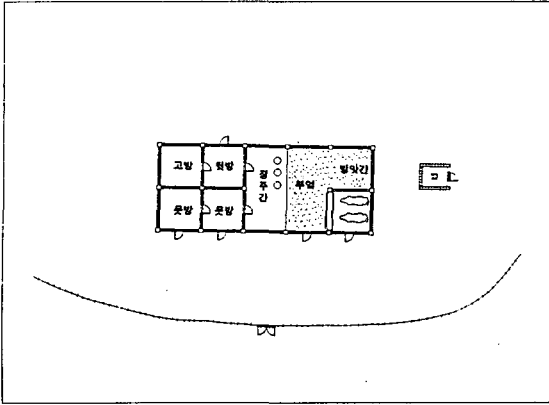


그림 3. 정주간이 있는 양통집 사례
(함북 학성군 박청암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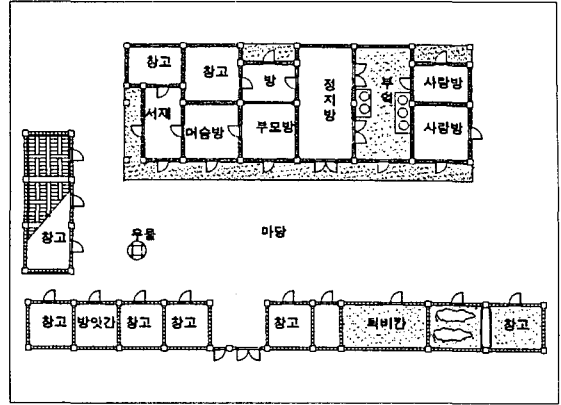


그림 5. 정주간을 구획한 사례(함남 북청군 주수요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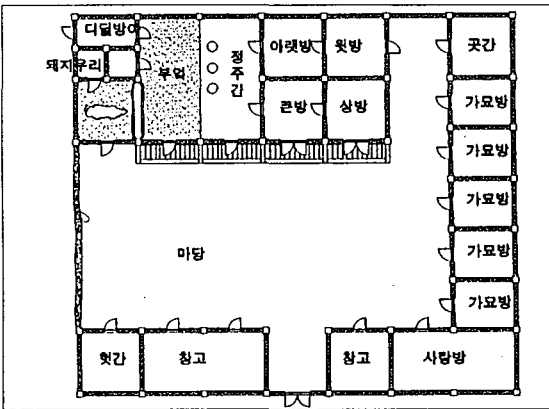


그림 4. 함경도 부농계층 주거사례
(함남 갑산군 김중운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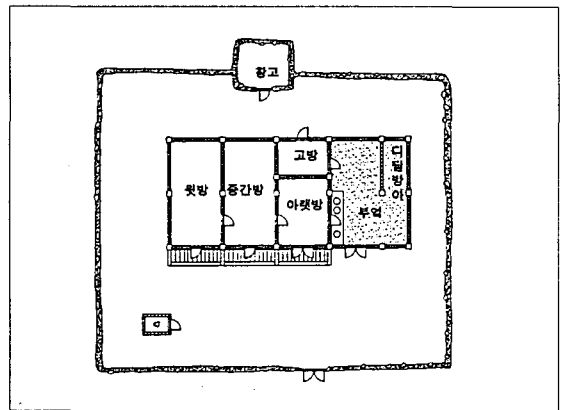


그림 6. 정주간이 없는 사례(함남 신흥군 이구연씨대)

도 회신되었는데, 살림채는 역시 같은 유형이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도 '정주간이 있는 양통집'이 함경도 지방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정주간이 부엌과 구획되거나, 정주간이 없거나, 외양간이 돌출되는 경우가 유독 함경남도에서 나타나고 있어 지역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분될 필요가 발생하였다. 먼저 '정주간이 없는 양통집'을 살펴보면 정주간과 부엌사이를 간막이 벽으로 막아 정주방을 만든 사례가 가장 많았고(4건), 아예 정주간이 없는 사례도 2건이 조사되었다. 또한 강원도 및 경북지방의 양통집 처럼 안침을 둔 사례도 발견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주로 함경남도에서 발견되는데, 이것이 기후적, 지형적 차이에서 기인

된 것인지, 또는 일제시기 도시화에 기인된 시대적 변화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함경남도에서 나타나는 경향중에서 특이한 것은 같은 양통집에서도 외양간이 돌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외양간이 마당쪽으로 돌출하는 사례는 함경남도에서만 9건이 발견되었다. 이 경우 외양간만이 돌출하는 것이 아니라, 살림채 뒷열의 폭이 감소하면서 수장공간으로 전용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그림 8)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앞열의 간폭이 11척인데 비해 뒷열은 7척에 불과하고 서고나 뒷방은 침실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부속채의 종류나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도 보인다. 이는 분명 함경북도의 양통집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유형적 구분이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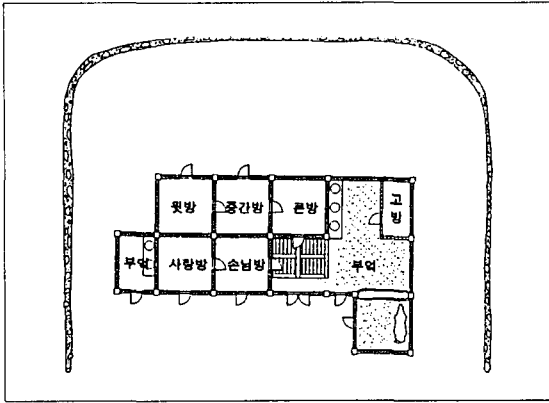


그림 7. 안청형 양통집의 사례(함남 안변군 이창환씨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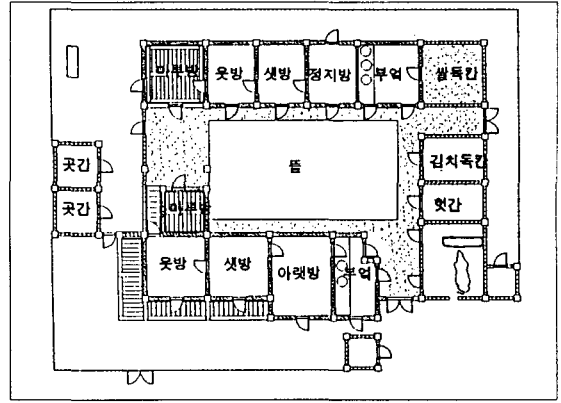


그림 9. □자집의 사례(함남 영흥군 박성근씨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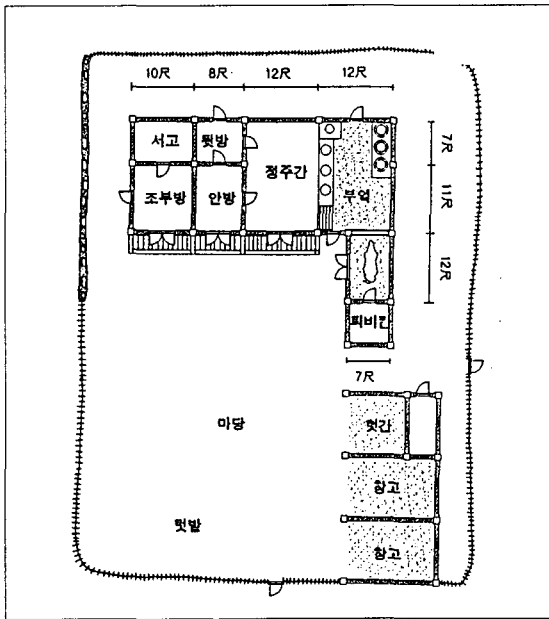


그림 8. 외양간이 돌출된 양통집 사례
(함남 함주군 이형철씨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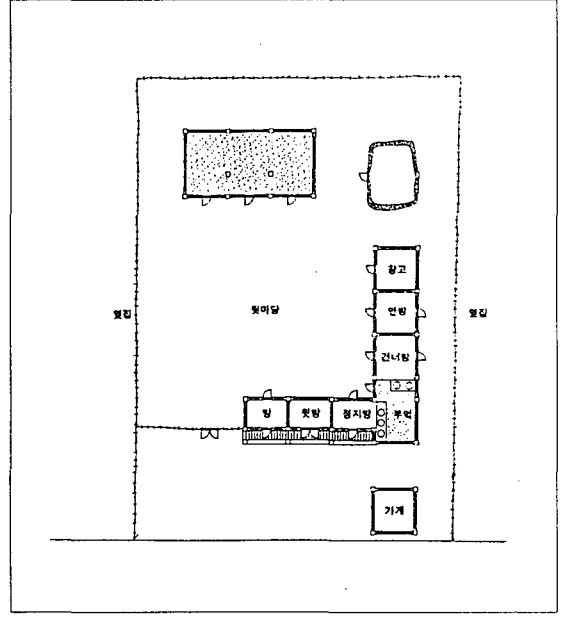


그림 10. 7자형 홑집의 사례(함남 영흥군 강명칠씨택)

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밖에도 기존연구에서는 제시된 바가 없는 특수한 유형들이 나타났다. 지주계층이라고 기술한 뜰집형태의 □자형 주거도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에서는 홑집으로서 7자형 꺾음집도 발견되었다. 특히 이 집은 반농반상의 생업형태를 갖는 집으로서 1915년에 건립되었다고 기록하였다. 따라서 근대도시화 이전에도 읍성지역에서는 생업형태에 따라 다른 주거유형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3-2. 평안도 지방의 주거유형

평안도 지방의 자료는 총 27건이 수신되었는데, 평안북도(11건) 보다는 평안남도의 사례(16건)가 많았다. 평안도 지방 출신자들이 회신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살림채와 대문채가 홑집으로서 평행하게 병렬배치된 유형이 압도적 다수(14건)를 차지하였다. 기존연구에서도 이러한 주거유형을 '2자집'으로 분류한 바 있고¹⁰⁾, 평안도 지방의 전형적 주거유형으로 설명해 왔다. 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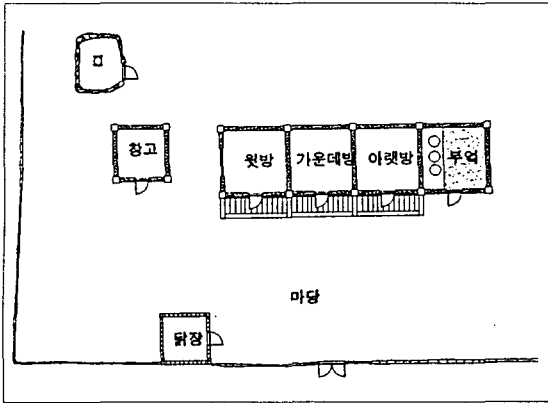


그림11. 평안도 소농주거의 사례
(평북 운산군 강조경씨택)

나 본 연구에서는 부속채가 없이 一자형 살림채만 있는 소농형 주거로부터 살림채와 대문채 사이에 부속채를 거느린 부농형 주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주거유형이 발견되었다. 이는 이 지역에서 홑집형 살림채를 기본으로 하고 경제력의 상향에 따라 대문채가 병렬배치되며, 최종적으로 살림채 좌우에 부속채가 건설됨으로써 결국 ㄷ자형으로 발전한다는 가설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二자집'(ㄷ자집 포함)은 한국 남부지방에서 발견되는 같은 배치평면의 주거유형들과는 성격적 차이가 있다. 우선 건물간의 거리가 가까워 안마당의 폭이 대단히 협소하고 폐쇄적이라는 점이다. 안마당은 대략 20척이내의 폭을 갖는 장방형 평면으로서 뜰, 안뜰, 뜰안, 안마당 등 뜰집에서 사용되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대문채밖의 바깥마당과 구분된다. 타작이나 탈곡 등 농작업은 주로 바깥마당에서 이루어지고 안마당은 마치 뜰집의 뜰처럼 채광이나 환기로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지 홑집이라는 평면형태와 건물의 배치방식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남부지방의 주거와 동일시 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살림채가 ㄱ자형으로 구부러진 사례도 수신되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10) 리종묵은 이를 외채집과 구분하여 쌍채집이라고 분류한 바 있으나, 평안도의 외채집은 쌍채집에서 대문채가 결여된 소농형 주거로 보이기 때문에 지역적 의미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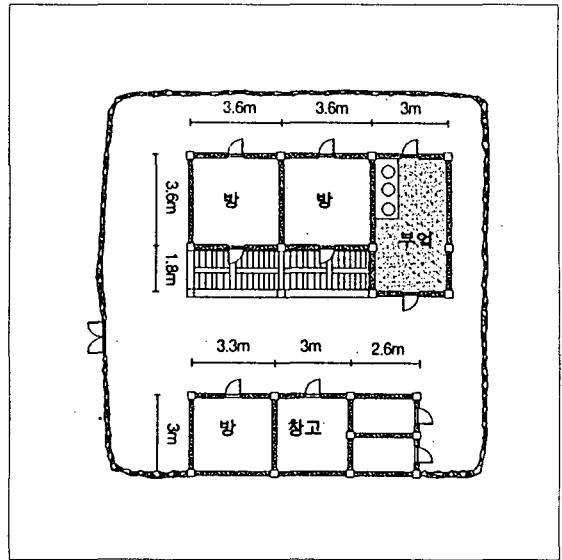


그림12. 평안도 중농주거의 사례
(평북 용천군 김병주씨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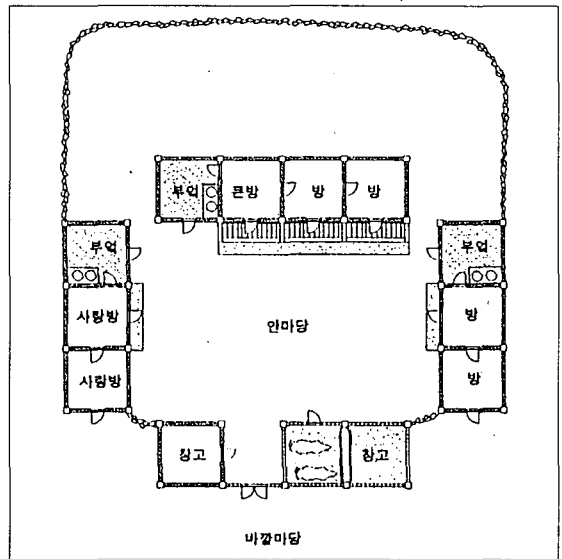


그림13. 평안도 부농주거의 사례
(평북 태천군 김현구씨택)

부속채가 없이 ㄱ자형 살림채만을 갖는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도시지역에서 대지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거는 종래에 '꺾음집'이라는 명칭으로 구분되어 왔으며 주로 멸약산맥 이남 개성지구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고 알려져 왔다.11)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압록강 근처인 농촌지역에서도 이와같은 꺾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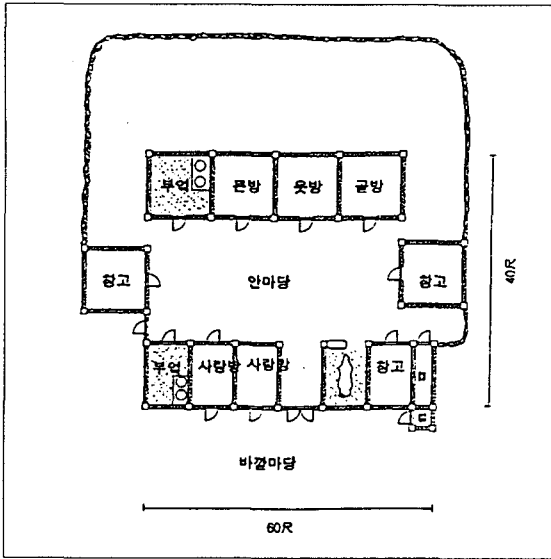


그림 14. 이자집에서 마당과 배치
(평북 박천 차만석씨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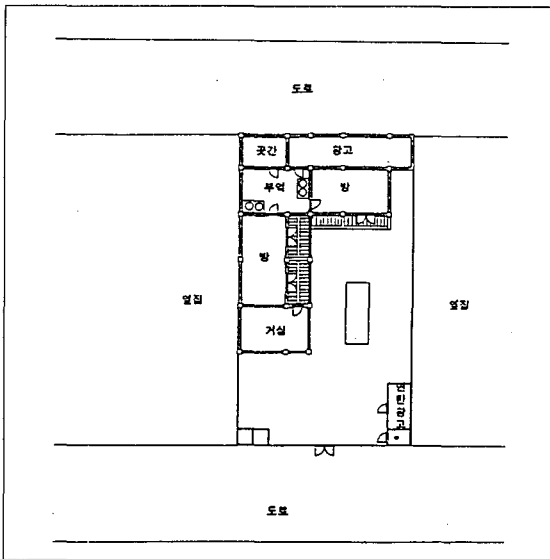


그림 15. 도시지역에서의 7자집 사례
(평남 평양시 서문동 대제리 강인선씨택)

의 사례가 수신되었다. 꺾음집은 부엌을 점점으로 구부러진 경우도 있었고 창고를 점점으로 구부러진 형태도 발견되었다. 어느경우이건 공간구성이나 배치형태로 보면 '이자집'에서 좌우의 부속채가 살림채와 연결된 형태 이상으로는 큰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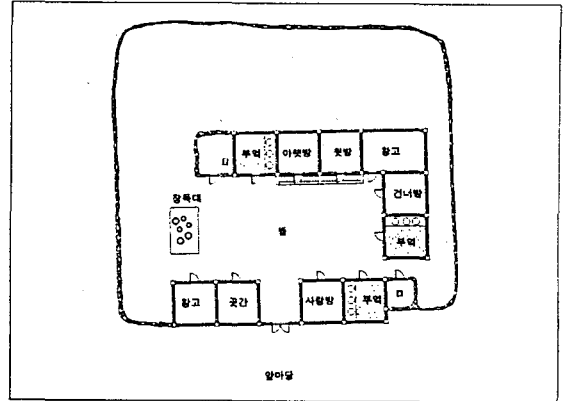


그림 16. 논촌지역에서의 7자집 사례
(평북 철산군 부면 정의선씨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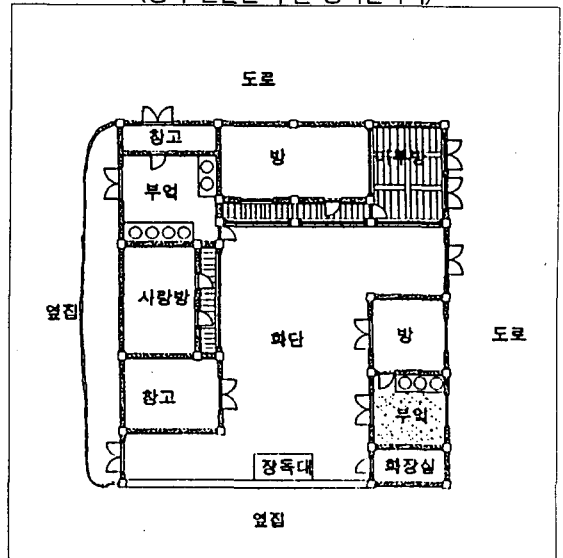


그림 17. 평남의 ㄷ자집 사례1(평남 평양시 김대식씨택)
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평안도 지방에서 일자집과 꺾음집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살림채와 부속채가 연결되어 ㄷ자형, 또는 모자형으로 폐쇄화 되는 경우도 3건의 사례가 나타난다. 마치 경북지방의 뜰집이나 경기지방의 모자집에서 한번이나 한 모퉁이가 트여진 형상을 가지고 있다. 다만 대청마루가 없다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평안남도 지역에서 수신되었는데 평양시와 그 인근에 소재한 것이었다. 황해도 지방에서는 이러한 유형들이 전형으로 나타나고 폐쇄도가 더하다는 점에서 일

11) 리종목, 앞책, 43-4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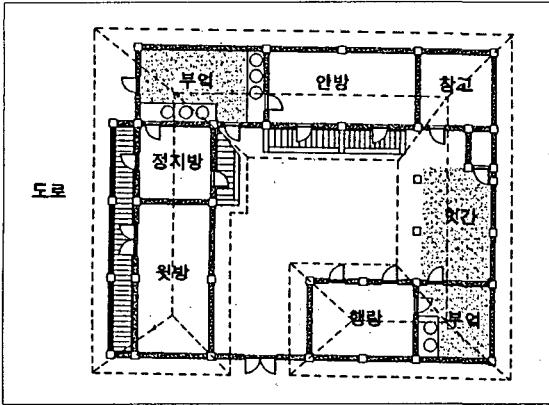


그림 18. 평양의 2자집 사례2(평남 성천군 이내흥씨댁)
단 지역적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평양과 개성이라는 도시성과 함께 그 발생기원을 분석할 필요도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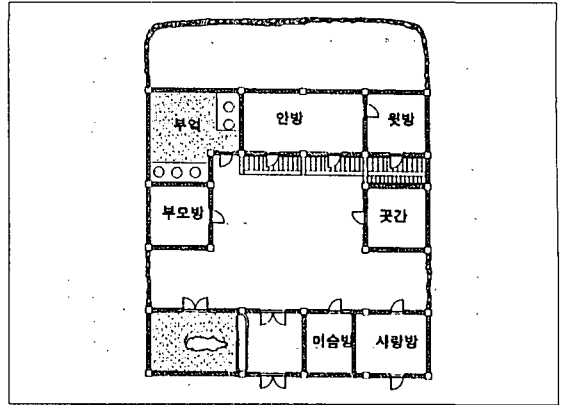


그림 19. 2자형 살림채와 1자형 대문채의 결합사례 (황해도 은율군 정재원씨댁)

3-3. 황해도 지방의 주거유형

이번 연구에서 황해도 지방의 자료는 불과 11건밖에 수신되지 못했다. 그나마 황해도 지방에서 수신된 사례들은 상당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유형화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다양성은 건물형태가 7자, 2자, 3자 등 다양한 꺾음집이 출현하는데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평안도의 꺾음집이 그러하듯 '이자집'에서 살림채의 좌우 협채가 어디에 결합되는가를 중심으로 본다면 그것을 각기 다른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좌우협채의 결합방식에 따라 7+2형, 2+1형, 1+2형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꺾음집의 빈도가 높다는 것이 황해도 지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황해도 지방에서도 멸악산맥의 이북지역에서 이러한 변형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멸악산맥을 기준으로 한 지역구분의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멸악산맥에 가까울수록 안마당이 좁고, 폐쇄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천군의 김용성씨댁은 2자형이지만 대문과 담장으로 안마당이 폐쇄되었고, 재령군의 유창현씨댁은 안마당의 규모가 두칸여에 불과하다.¹²⁾ 멸악산맥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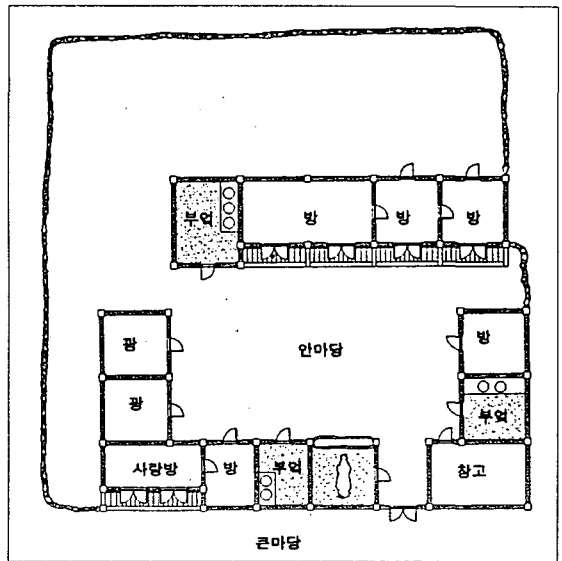


그림 20. 일자형 살림채와 2자형 대문채의 결합사례(황해도 사리원시 조침남씨댁)

기에 소재한 서흥군 이운호씨댁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7+2형 주거이지만 두 채사이의 간격이 극히 협소하여 거의 3자집의 형상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미 평안도 2자집의 골격을 벗어나고 있어 황해도의 지역성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멸악산맥 이남지역인 연백군에서는 완전한 3자집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집을 회신자들은

고 했으나 신천군이나 재령군은 멸악산맥 이북지대이다

12) 리종묵은 2자형 꺾음집이 멸악산맥 이남에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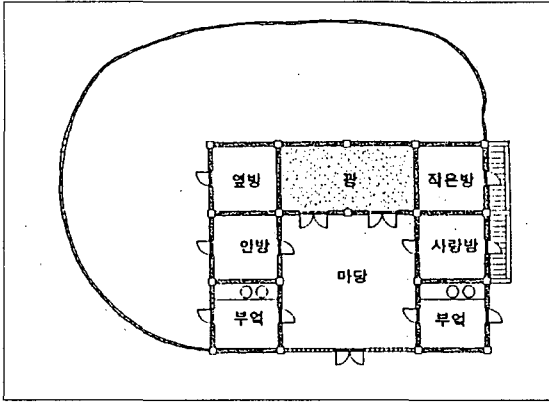


그림 21. 황해도 ㄷ자집의 사례1
(황해도 신천군 김용성씨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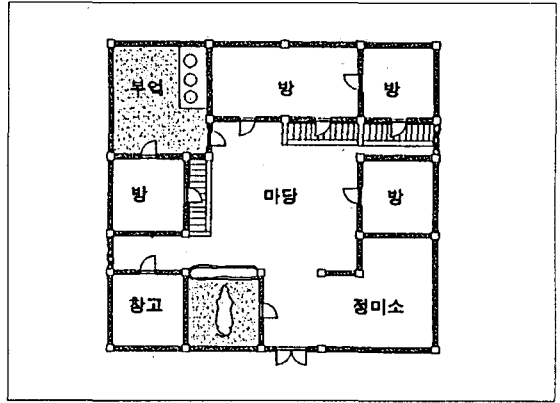


그림 23. 황해도 ㄱ+ㄴ자집의 사례
(황해도 서흥군 이운호씨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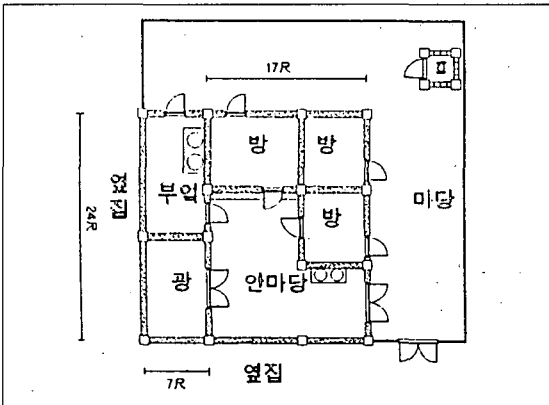


그림 22. 황해도 ㄷ자집의 사례2
(황해도 재령군 유창현씨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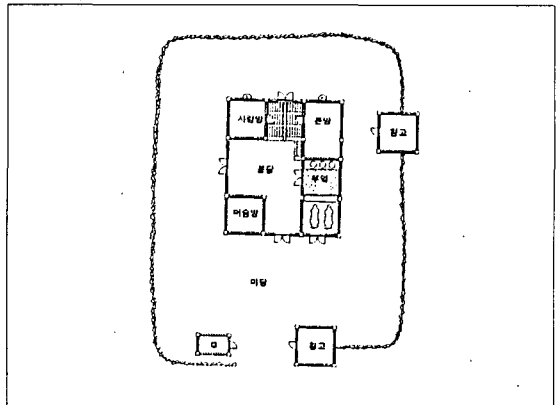


그림 24. 황해도 ㄹ자집의 사례1
(황해도 연백군 김희찬씨댁)

‘파리집’, 또는 ‘퇴쇄집’이라고 부르고 있다. 종래의 연구에서 ‘파리집’은 황해도의 전형적인 유형으로서 경기도 서해안지방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¹³⁾ 본 조사에서 발견된 파리집은 단지 ㄹ자형 주거라는 특징만이 아니라 대청마루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멸약산맥 이북의 주거와 큰 차이를 이룬다. 리종목도 대청이 있는 격음집을 멸약산맥 이남지역의 특징으로 보았다.¹⁴⁾ 대청은 또한 경기도 및 남부지방 주거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청의 유무는 향후 주거유형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해도 지방의 특수한 사례로서 양통집이

발견된다는 사실도 특기할 만하다. 황해도 신천읍에 소재한 권영기씨댁은 전형적인 양통집으로서, 정주간이 없고 살림채안에 외양간을 두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 이러한 주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함경남도의 전형적인 주거와 대단히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양통집의 존재는 이미 리종목에 의해 황해도에도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단 1건의 사례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황해도에 양통집이 주류를 이룬다고 하는 김광언의 주장¹⁵⁾은 아직 통계학적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황해도의 외통집과 양통집이 계층적 차이인지, 지역적 차이인지도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13) 김광언, 주거민속지, 민음사, 1988, 191-210쪽

14) 리종목, 앞책, 48쪽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경기 및 강원도에 거주하는 북한출신자들을 대상으로하는 조사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연구가 완료 되는대로 위 단서들이 검증될 예정이다.

참고 문헌

1. 小田內通敏, 1923, 조선부락조사예찰보고, 제1책, 조선총독부
2. 小田通敏朝, 1924, 조선부락조사보고, 제 1책, 조선총독부
3. 今和次郎, 1924, 조선부락특별조사보고, 제1책 (민가), 조선총독부
4. 岩規善之, 1924, 조선민가의 가구에 대하여, <조선과 건축> 1-5
5. 野村孝文, 1938, 조선주택의 일고찰, <조선과 건축> 17-5
6. 리종목, 1960, 우리나라 농촌주택의 유형과 그 형태, 19세 중엽~20세기 초엽, <문화유산> 5호
7. 리종목, 1960, 우리나라 농촌주택의 발전에 관한 민속학적 고찰, <문화유산> 6호
8. 황철산, 1965, 우리나라 과거주택의 유형과 그 형성 발전, 고고민속 3호
9. 주남철, 1980,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0. 장보웅, 1981, 한국의 민가연구, 진보제
11. 신영훈, 1983, 한국의살림집, 열화당
12. 김광언, 1988,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3. 김홍식, 1993, 한국의 민가, 한길사
14. 강영환, 1991,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5. 강영환, 1989, 韓國 傳統民家 연구의 動向과 果題, [건축] 제33권 2호
16. 강영환, 1989. 三陟以南 東海岸 지역 傳統民家에 관한 연구
- 地方木手들의 知識體系 分析을 통하여-, 서울대 박사논문
17. 강영환, 1989, 民族科學的 方法을 원용한 傳統住居文化의 연구
- 동해안 지역 傳統民家를 대상으로-, 韓國문화인류학21집
18. 강영환, 1992, 지방대목들의 지식체계 분석을 통한 전통주거문화의 연구
- 북부 영남지방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 연구논문집 8권 2호 통권 40호
19. 강영환, 1994, 中國 延邊地區 朝鮮族의 住居空間 및 生活方式
- 龍井市 智新鄉 長財村을 대상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지 5권

A Study on the Traditional Houses of North Korea(I)

- Based on the Memories of Immigrants from North Korea -

Kang, Young-Hwan

ABSTRACT

Architectural researches on the traditional houses of Korea have been studied mainly based on the data collected in the field survey. From explosively increased real measurements and drawings in the field, plenty of data have been collected. Those have been the basic data for verifying and developing the theories on the traditional house. But after Korean war the researchers in South-Korea were not able to approach to the field in North Korea, so the new data of North Korea were not added any more. The poverty of real data have caused regional unbalance in the researches.

This paper aims at collecting new data of traditional house in North Korea. But still being prohibited for the researchers of South Korea to approach to the field, I had to depend on the memories and experiences of the immigrants from North Korea who are now living in Kyon-Nam and Pusan Province. Through the questionnaire and drawings, they described vivid memory of their old houses. I was able to collect the data of 71 cases, which are significant and valuable as much as those of the real field are.

The data include the address and site condition, family structure, economic condition, construction period of each house. The drawings by themselves show the building forms and plans, the plans of each building, and the included spaces. Although the quantity of those data is not enough for statistical analysis, it shows general tendency for analyzing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differences among economical classes, and the periodical change. It opens the way for verifying the existing theory. Analyzing the data, I have some conclusions as followings:

a. Most of researchers have classified the dominant housing type of Hamkyong-Do as 'the double fold' type. In this study, all cases of Hamkyongbuk-do also show 'the double fold plan with Chongju-kan'. But in Hamkyongnam-do some cases show 'the double fold plan without Chongju-kan, or projecting the stable into the yard, which seem to be different type from 'the double fold plan with Chongju-kan'.

b. Existing theories classified the dominant housing type of Pyongahn-do as 'two buildings with pararell arrangement'. This classification is verified with the plentiful cases in this study. Futhermore, I found new tendency, that is, getting higher economic condition, they construct annex buildings between the main buildings. Finally their houses show 'scattered □ shape'. The houses included in this two types has narrow and closed inner yard, which is different from the houses of the same shape in the south region of Korea.

c. Existing theories classified the dominant housing type of Hwanghae-do as '□ sape with Daechong' type. I found many cases of '□ shape', but only two cases show 'Daechong'. 'The doble fold' type was also founded. Unfortunately very few cases were sent from Hwanghae-do, it is not enough for finding general tendency.